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8월 31일(금)
..(음력 7월 21일)..

Пятница
31 августа 2018 г.
№ 34(11680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9월 2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다.

사할린주 여러 곳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지는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아침 10시 슬라와 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3주년 기념 집회가 열린다. 승리(포베다)기념관에서는 11시부터 <해방>이란 행사가 개최된다. 저녁 8시에는 <백야의 밤>양상블과 서북방위군대 본부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열리고 22시 10분에는 포베다 광장에서는 불꽃놀이로 기념일을 마무리한다.

(이예식 기자 사진수첩에서)

단신

제25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 행사 개최

8월 31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 문화회관 앞 사할린동포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제 25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 행사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한국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회장 이용택) 주최로 해마다 진행되는데 이번에 위령제 일환으로 제1회 공존역사의 메아리 사할린 진혼제 <내 고향으로 가는 날>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 공연은 세계지역문화예술센터,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 48호 평택민요보존회가 공동주최한다고 전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추모제를 한후 포자르스코에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에서도 추념행사를 할 예정이다.

녹산원 농장 내 사할린 강제징용 무연고 희생자 위한 추모관 준공

지난 30일(목) 오후 4시 30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녹산원 농장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서 60여 명의 인사들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한국 매체에 의하면 추모관은 528㎡ 규모로, 내부에는 위패 8천여 기를 모실 공간이 마련됐다고 한다.

주최 측은 "추모관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무덤마저 방치된 무연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사할린주한인협회를 비롯해 사할린 한인 단체들은 추모관 준공식에 불참을 선언했다.

KIN단체, 사할린주한인협회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사할린한인문제로 수년간 사할린 동포단체와 협력하여 활동하는 KIN(지구촌동포연)한국 민간단체가 지난 27일(월)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지난 2014년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 사할린 단체와 한국한인회, KIN(지구촌동포연대) 등은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설립된 법인 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에도 저희단체는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할린 한국한인회가 주장하는 한인회 명칭 사용 등, 지속적으로 벌어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들은 사할린 동포사회에 심각한 굴욕을 주었고, 더 이상 사할린한인의 역사를 기념하는 목적을 같이 수행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사할린 한국한인회와 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국인 사단법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도 공식 통보하는 등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이에 사할린주 한인협회에도 이 사실을 공식 통보합니다".

킨의 최상구 사무국장은 "2014년 사할린 한인 역사기념을 위한 양해각서의 추진을 더 이상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할린 한국한인회와 함께 하지 않기로 한 사할린주한인협회와 KIN(지구촌동포연대)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포들의 역사와 인권에 대한 활동을 해온 본 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는 현장의 동포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다"며 "늘 그랬듯이 올해에도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달력제작, 내년도 설잔치 지원에 대해 협의하는 등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같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본사 기자)

사할린주, 농산물과 석탄 생산량 증가

금년 7개월간의 사할린주의 사회경제발전의 결산이 이뤄졌다. 지역 제품 생산량은 5822억 루블리(작년 같은 시기 비례 98,8%), 공업 생산량은 5777억 루블리(99,1%)에 달했다.

2017년에 비해 지역에서 가스 채취량은 9,3%(191억 m³), 석탄 생산량은 1,5배(590만 톤) 증가되었다. 가스 응축수를 포함해 석유 채취량이 3,4%(1090만톤)가 감소되었다.

올해 7개월간 주내에서는 전기, 수증기, 온수, 액화천연가스, 목재, 생선통조림, 우유 및 우유제품, 버터, 육류, 맥주, 미네랄 워터 등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다.

농산물 생산량은 34억 루블리에 달했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4배 더 많다. 육류(1,7배)와 달걀(1,5배) 생산량도 크게 증가되었다. 우유는 7,7%, 돼지 수는 1,3배, 소 수는 6,8%, 가금류는 5,2% 더 했다.

소비자 시장에는 보고기간에 소매 판매량은 3,8%, 유료 서비스는 2,1% 증가되었다.

기록실업률은 2018년 7월 말에 0,5% 달했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0,2% 덜하다.

사할린주, 신학년도에 6000여 명의 신입생 입학

9월 1일 러시아에서 신학기가 시작된다. 개학날 사할린 주내 학교에서는 5만80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한다.

이날 6000여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학창생활을 시작한다고 사할린주교육부가 기자회견에서 알렸다. 나탈리아 무라쇼와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섬지역의 모든 학교들은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8월 20일까지 지방자치체들에서 점검받은 356개 교육기관이 통과되었다고 알려졌다. 올해 학교 건물 수리에는 10억 루블리를 지급하고 화재안전에는 1억1000만 루블리, 반테러 조치에는 7500만 루블리를 할당했다. 올해 주내교육기관을 위해 1만1000여 대 실험·교육활동과 컴퓨터 및 스포츠기기를 비롯해 교재 28만3000여 권을 구입했다. 지방자치체 신청에 따라 학생 모두에게 보급될 교과서도 확보되었다. 신학년도 학교 준비과정에서는 특히 테러 안전점검, 학교 급식과 통학버스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본사 기자)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제8회 사할린 국제영화제

'사랑받을 때 모든 아이들은 아름답습니다' (영화 '회귀' 중)

일주일간 영화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에 각국의 영화들이 초청되어 상영되고 콩쿠르에도 참가했다.

이번에 콩쿠르에 나선 9편의 영화들 중에 한국-덴마크 합작, 최 말레네 감독의 <회귀(2018년 개봉)>가 27일과 28일에 상영되었다. 상영에 앞서 최 말레네 감독의 인사가 있었다. 영화는 실제 한국 해외입양아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회귀'라는 주제로 좁혀 구성되었다.

주인공 캐롤리나 최를 통해 최 감독의 얘기를 그대로 담았다고 했다. 캐롤리나의 친구인 토마스 환도 실제 덴마크 입양아이다. 영화 속에는 입양아들이 성장해 한국으로 돌아와 뿌리를 찾으려는 몸부림과 아픔 그리고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 거기에 캐롤리나 최가 있다. 캐롤리나는 인천시 병원에서 태어나 위탁모에게 맡겨진 후 2세에 덴마크로 입양되어 34세가 된 성인인 되어서야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가장 궁금한 것, 자신을 낳아서 버려야 했던 어머니를 찾는다.

영화는 많은 대사보다도 상징적인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무

엇을 찾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해변가의 철책선, 좌우 벽돌로 지어진 집들 사이의 아주 좁은 골목길, 스크린도어가 눈앞에서 닫히는 장면, 미로 같은 골목길의 출구, 닫히는 문, 실시간 감시 카메라, 아무도 없는 바닷가의 빨 등. 호스텔 입구로 짐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캐롤리나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하나였다. 어머니다. 호스텔에 묵고 있는 동료들 또한 해외 입양아들이임을 알게 된다. 입양인이었던 동료들 사이에서 어머니를 찾는 소감과 느낌을 듣는다.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친구는 예술가로 성장해 앞으로 2086년까지 삶을 설계하여 한국의 부모님과 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놓기까지 했다. 처음 어머니와 만남은 낯선 느낌이었지만 두 번, 세 번 만나가면서 안정이 되고, 찾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고 말한다. 어머니를 찾아 만나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캐롤리나가 어머니를 찾으려는 열망은 그래서 더욱 커져간다. 이때 같은 덴마크 입

양아인 토마스 환과 공감을 나누며 함께 어머니를 찾으려 나선다.

-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이 본격화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1953년부터 이뤄졌다. 전쟁 고아를 비롯해 혼혈아들은 미국인들에 의해 입양되었다.

이후 1955년 미국의 홀트부부가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하면서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가난 때문에, 미혼모로서, 고아로서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입양되었다. 국내에서는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

적 문화로 입양하는 가족이 드물었다. 2012년 입양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외입양 서류를 간소화하여 위조된 '고아호적'을 만드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고아자적의 입국비자로 해외에 입양된 후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국적 미취득자가 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 캐롤리나와 토마스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찾는다. 홀트아동복지회를 찾아가는 길에 이런 포스터를 발견하고 잠시 주시한다.

(7면에 계속)



▲ 개막식 전, 레드 카펫. 심사위원들.

(영화제 홍보실)

이 모 저 모

<물고기 섬> 축제 진행위원회는 활동교실 참가 희망자 초대

다음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물고기 섬>음식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일환으로 9월 3-4일간 요리 활동교실이 진행된다.

<물고기 섬>음식축제는 2015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첫 축제행사가 시민들과 시 방문객들의 기호에 따라 진행되어 매해 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러시아 국가요리사조합의 회장인 알렉산드르 필린이 행사의 귀빈으로 초대되었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요리 준비에 해물과 생선을 주재료로 선정했다면 이번에는 구운 쇠고기를 이용한 샐러드, 스테이크에 따른 활동교실이 프로그램에 있다. 제시된 세계요리의 종류는 서양과 동양으로 더욱 다채로워졌다. 신년 축제의 전통요리에 더할 나위 없는 향기로움을 선사할 세르게이 로바체브의 밀감을 곁들여 잣으로 만든 스메타나는 활동교실 참가자들에게는 깜짝 재료로 등장한다. <메가팔라스>호텔 김 파벨 요리사는 "올해 우리는 식자재 원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식품을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이론을 더 많이 가르쳐주려고 한다."며 "어디에서 필요한 요리재료를 주문할 수 있는지, 태국요리에 유명한 새우 수프의 맛을 재현해내도록 알맞은 소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가 희망자들로서는 무료로 <물고기 섬>축제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만하다. 13개 즉석요리 마스터클래스들이 <메가팔라스>호텔 가설주방에서 이틀간 아침 10시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요리사들의 요리과정은 자세한 단계적 설명에 따라 진행된다. 축제의 실제 프로그램은 이미 작성되었고 교육행사 일정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사이트의 특별주제 부문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활동교실에 대한 상세한 프로그램 외에도 요리팀들에 대해 알 수 있고, 축제진행 역사에 대한 사진, 동영상자료 관람, 활동교실 참가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Organizatory festivala "Ostrov-ryba" приглашают желающих 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тся кулинар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которые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оятся 3 и 4 сентября.

Впервы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прошел в 2015 году. Первое событие настолько пришлось по вкусу горожан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что фестиваль было 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ежегодно.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шили расширить формат фестиваля: если раньше основой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люд бы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морепродукты и рыба, то сейчас в программе ес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стейков, теплого салата с говядиной. Более яркой стала и палитра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мировых кухонь: европейская, восточная. Сюрпризо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астер-классов станет еловая сметана с мандаринами от Сергея Лобачева, которая придаст привычным блюдам праздничного новогоднего стола неповторимые ароматные ноты.

— Мы хотим в этом году больше показать теории — как работать с сыром, обрабатывать продукты, — рассказал шеф-повар отеля «Мегапас» Павел Ким. — Нам важно показать начинающим поварам, где можно заказ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ингредиенты, как выбрать правильный соус, чтобы, например, с точностью воспроизвести вкус известного супа из креветок тайской кухни.

Стои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участие во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ях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бесплатное.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ая кухня вновь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стенах комплекса "Мега Палас отель", где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с 10 утра пройдут 13 мастер-классов. Процесс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люд мастера сопровождают подробными пошаговыми инструкциями.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а,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ающих мероприятий можно найти в специальном тематическом разделе о фестивале на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десь помимо подробной программы мастер-классов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мандой шеф-поваров, а также посмотреть фото и видеорепортажи за все годы существования фестивал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자신을 믿으라!> 회화-응용미술 전시회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70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주 일반과학도서관 강당에서 9월 7일까지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된 작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뜨개질, 자수, 아플리케, 회화 등, 작품 중에는 구슬로 장식한 그림과 사진예술도 있다.

참가자들의 창작력과 연령대의 폭도 넓다. 최연소자는 12세, 노련한 최고령자는 79세이다. 장인들 각각에게는 고유한 창의적 특성이 있다.

회화-응용미술 작품 전시회는 제22회 <자신을 믿어라!>장애인들 주 예술창작 축제의 최종단계로 진행되는 행사 중 하나다. 첫 단계로 사할린-쿠릴 지역에서 콘서트와 전시회가 진행되었고 최종대회에 참가할 우수자와 우수작품이 선정되었다. 지역 전시회 방문객들에게는 <회화>, <사진예술>, <응용미술,수공예품> 3개 부문에서 특별 선택목록에서 마음에 든 작품을 체크한 후 우수자를 선택하도록 제안한다. 주 사회보호부 사이트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우승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10월에 열릴 축제의 최종 갈라콘서트에서 가질 예정이다. 사회보호부기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작품은 콩쿠르에 출전하지 않고 전시된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верь в себя!»

В открывшей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кспозиции - 70 композиций. В актовом зале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и они будут выставлены до 7 сентября.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в разной технике: вязания, вышивки, аппликации, живописи. Среди них также есть картины из бисера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фотографии. Творческий и возрастной диапазоны участников широкие. Самому юному автору - 12 лет, самому опытному - 79. У каждого из 40 мастеров есть сво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творческий почерк.

Выставка художествен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мероприятий финального этапа XXII областного фестивал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здоровья «Поверь в себя!».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ошли концерты и выставки, для участия в финале были отобраны лучшие номера и творческие работы.

Посетителям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ложено выбрать лучших авторов в трех номинациях: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фотография» и «Прикла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поделки», отметив понравившиеся работы в специальном бюллетене. Голосование организовано и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бласти.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гала-концерте 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октябре. Вне конкурса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инвали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учреждениях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러시아 우체국 사할린 지점의 전화번호 변경

<러시아 우체국>지점인 사할린 우체국은 협력기관과 고객들에게 지점번호와 693020, 693019, 693024호 우체국, 택배사무소의 (전 EMS) 전화번호 변경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8면에 계속)

독자의 편지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 할까?

지금 사할린 땅에 현덕수란 사람이 돈 주고 개인으로 땅을 싸서 개인 밭에 추모관을 세워놓고 8월 30일에 기념비 오픈하는 행사를 치르자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많은 손님들이 한국과 러시아에서 초청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고 미리 알리는 바입니다. 일제시대 우리 부모 형제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놓은 사할린주한인협회를 무슨 이유로 '사할린 고려인 동포회'로 바꾸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들 생각해 보시오! 사할린 한인들은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사할린 한인 협회'가 옳은 명칭입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일본인들이 패전 후 자기들만 빠져나가면서 사할린에 버려놓은 한국인들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70년 기간에 자기 민족을 찾지 않은 결과, 운명의 희롱으로 사할린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왜 이러한 한민족을 이렇게도 무시하고 있습니까? 사할린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대신 당신들 부모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팔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런 자리를 팔아 먹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우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무슨 이유로 현덕수란 한국 기업가가 자기 텃밭에 추모관을 세워놓고 추모의식 행사를 치르자 하고 있는가? 지금 세워져 있는 추모관은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협의하여 세워진 대상이 아니

므로 이 비석은 사할린 한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비석입니다.

둘째로, 추모관에 추모 명단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무슨 이유로 사할린에 왔으며 사할린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들인지, 사할린에 왔다가 나간 사람들인지, 친척조차 확인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추모관에 들어간 이름들은 사할린 한인협회와 합의해 만든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이름들입니다. 더욱 참담한 얘기는 이 추모관을 현덕수 씨가 세운다는 정보는 부산 우리민중서로 돕기운동이 만든 입장문에는 이렇게 적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덕수 회장은 개인의 돈으로 100% 추모관을 짓고 있으니 상을 쥐도 모자라는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셋째로, 이 분이 박순옥 회장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사할린 한인들을 대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할린 한인 회장이 될 경우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으로 협회 운영비를 받아낼 자격이 있다고 자랑한 사람입니다. 2018년 8월 10일 새고려 신문에 발표된 호소문에 따르면 현덕수란 기업가가 무슨 이유로, 무엇이 부족해 '사할린 한인 협회'를 '사할린 고려인 동포'라는 명칭으로 바꾸라며 강제로 밀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하고 억울한 현실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최송합니다.

사할린 2세 이재인
2018/08/27

갈등 영토 문제로 러·한 학술 세미나 개최

지난 28일(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환동해 문명사를 통해 본 영토문제로 러·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재)독도재단과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이 주최로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을 비롯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할린한인, 역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독도재단의 연구진과 경상북도 사회활동가 등 총 16명이 사할린을 찾았다.

세미나 본격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유리 알린 관장과 독도재단 이상모 대표이사가 환영했다.

"환동해, 바다를 통한 평화와 협력"주제인 학술세미나에는 경상대학교 신재열 교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송휘영 교수,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선임연구원 진 율리아 박사, 주향토박물관 학술계몽부 타치야나 차이첸코 부장은 동북아 지역(러시아, 일본, 한국 등) 영토 문제에 관한 발표를 했다. 특히 1945년 제2세계대전 종전 후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영토문제를 다.

한편 독도재단은 환동해 관련, 특히 독도 관련 해외학술세미나는 중국, 일본, 미국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09년에 경상북도에 설립된 독도재단은 연구사업과 함께 교육사업, 홍보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 25일 사할린에 도착한 독도재단 대표단은 바로 포로나이스크로 출발해 그곳에서 과거 한인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북방 소수민족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 대표단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도 역사탐방했다. 소수민족인 님프마을도 찾아 이들의 문화를 체험했다고 한다.

독도재단은 앞으로도 사할린과 계속 교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순신 기자)



(전호의 계속)

7. 재외동포법의 제정경위와 문제점

I. 사할린 한인, 고려인, 재외동포란?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이며, 고려인이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서, 독립국가연합은 러시아 외에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그루지야)가 포함된다.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철종 14)으로, 농민 13세대가 한겨울 밤에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우수리강 유역에 정착하였으며, 이어 1865년(고종 2)에 60가구, 그 다음해에 100여 가구 등 점차 늘어나 1869년에는 4,500여 명에 달하는 한인이 이주하였다. 이후로도 이민은 계속되었는데, 거의가 농업 이민이었으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도 있었다.

2005년 8월을 기준으로, 러시아에 19만 671명, 우즈베키스탄에 20만 917명, 카자흐스탄에 10만 3676명, 키르기스스탄에 2만 394명, 우크라이나에 1만 3111명, 투르크메니스탄에 420명, 타지키스탄에 1783명, 벨라루스에 1327명, 몰도바에 258명, 조지아에 20명, 아제르바이잔에 63명, 아르메니아에 30명 등 총 53만 2697명이 거주하고 있다(프렌드 아시아, 김진아 글 인용, 2018. 5. 31.자).

그런데 이들이 원래는 조선인인데 왜 고려인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설들이 분분하다. 첫째, 그들이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고 난 뒤 조선은 없어졌다고 하면서 고려인이라고 불리달라고 했다는 설, 둘째, 한국을 영어로 KOREA, 영어 발음상으로는 코리아, 꼬레아, 코려 등으로 불리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고려인으로 추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들은 원래의 고려인이 아니고 조선인이었다. 중국으로 건너간 동포들은 그대로 조선족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이제는 그 숫자가 줄어 소수민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중국 연변에 200만에 가깝던 조선족이 현재의 한국으로 많이들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한국인이 된 것은 아니고, 동포로서 일자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다.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욱(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그래서 이들을 한국에서도 분리하여 사할린 동포와 고려인 동포로 구분하여 지원하려고 하나, 사할린 한인에 대하여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2017. 2. 발의) 등이 수없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통과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고려인 동포에 관하여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칭: 고려인동포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이 시행되어 있으나, 여전히 미비점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재외동포법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 고려인 동포 등 4세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수 없어 부모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 4세는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이들에 대한 임시조치를 하여 이들이 당분간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면 왜 이들 4세에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재외동포법의 연혁에 관하여는 6편의 영주귀국자편에서 앞서 언급한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2017년 9월 12일, 법무부는 고려인 등 4세대 고려인(중국동포 포함) 동포 등이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규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약칭함.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와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 아래표 참조)으로 인하여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족해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2017년 9월 13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자격(F-1)-취업활동금지-을 부여하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왜 3세대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하였으며, 법무부가 한시적 구제조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III), 고려인과 조선족은 동포인가 외국인인가(IV)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재외동포법의 변천

1. 한시적 구제조치가 왜 시행되었는가?

아래의 표는 법무부가 고려인 동포 제4세를 대상으로 한시적 구제조치를 하기 위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이러한 한시적 구제조치를 하여야 하였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시적 구제조치 대상자(2017. 9. 12. 법무부 보도자료)

【붙임 1】 한시적 구제조치 대상

- 1.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 연장 및 체류허가
 - ① 동포임이 확인된 자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으로 확인)
 - ※ 동포의 배우자가 “② ~ ④” 요건을 충족하면 동포가 아닌 경우(제3국 출신 포함)에도 해당
 - ② 국내에서 체류하는 부 또는 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분가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부 또는 모가 국민이거나 체류자격이 H-2, F-4, F-5인 경우에만 가능,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단, H-2소지한 부 또는 모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간주
 - ③ 국내 범법사실이 없는 자
 - ④ 초·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대안학교 포함)이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예정)자
- 2. 조치기간 : '17. 9. 13.(수) ~ '19. 6. 30. (일)
- 3. 연장방법 : 부 또는 모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용창구에서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 연장 (사전예약 불필요)
- 4.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 '엄중경고' 조치하고, 범칙금면제 및 F-1(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 허가 (연장방법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조건 동일)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ные футболисты пообщались со сверстниками Кореи, Китая и Японии

С 16 по 20 августа в г. Донхэ(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шел 4-ый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Азиатский фестиваль юных футболис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цель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 объединить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Он проходит ежегодно. Россия в 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юношеской команды впервые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Всего на форуме было представлено шесть футбольных команд (по одной из Китая,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тр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гласно проведенной жеребьевке команды были поделены на 2 группы и определены полуфиналисты. В первом полуфинале встретились команды из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а во втором Япон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атч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олучился напряженным, но победа досталась хозяевам фестиваля. В матче за 3-е место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одержала победу.



Помимо осно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юных футболистов ожи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ебята много общались, познавали культуру страны предков.

В первый день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садки деревье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земли и воды, привезенных из стран участник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Ребята смогли поиграть на барабанах, где юные футболисты Сахалина проявили себя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А также рисовали картины и плакаты, посетили бассейн, совершили экскурсию по канатной дорожке. Всем запомнилась борьба на поясах «ссырым».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наша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заняла 1-е место по итогам всех боёв.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вечере каждая из стран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об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ах,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ах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казали гостям форума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о сегодняшней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е.

В завершающий день форума всем командам были вручены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и награды.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заняла почетное 3-е место.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ручила организаторам фестиваля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от руководств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Юные футболисты приобрели новых друзей, получили огромный опыт игр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научились весело общаться со сво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Алеся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поры обсуди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научном семина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пор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истории у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Такова тем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еминара,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о вторник 28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еминаре,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ыступили четверо докладчиков – профессор Син Джээль (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сан) с докладом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ценность и значение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на основе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профессор Сон Хвиён (университет Ённам) с докладом «Морские культуры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по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Дин с докладом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послево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их влияние на границы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заведующая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м отделом по работе с посет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Татьяна Чайченко с докладом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спор или пересмотр итогов II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обсужде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аучные сотрудники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из провинции Кенс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по историческим мотивам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аспектам путей решения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бменялись сахалинские коллег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вызвала практика мобил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 Южной Корее, остро реагирующей на искажения истории. Одна из организаций, занимающаяся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м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м претензиям и освещающая проблематику – это Фонд Токто.

- Исторически, географически, по закону острова Токто принадлежат Южной Корее. Эту реальность мы рассказываем за рубежом, людям во всем мире. Подобные семинары мы проводим в Японии, США, Китае, – рас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фонда Токто Ли Сан Мо.

Нынешний семинар уже второй по счету. Впервые ученые Кореи и Сахалина провели науч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базе СаХГТИ. Мероприятие явилось важным для сторон участников, породив первый прецедент создания платформы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ешен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споров.

Участники дискуссии выявили, что это не исчерпывающий перечень форм и методо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укрепления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обоих государств.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еминара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специальном сборнике.

Семинар закончился круглым столом, где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доклады и задали вопросы выступающим.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и дальше продолж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изучении вопроса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спорах вокруг островов Тихого океана.

Фонд Токто создан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Кенс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09 г. Занимает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Корее и за рубежом.

В этот раз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о 16 человек. Делегация побывала в Поронайске,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где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жизнью и бытом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Ольга РИ

В "Белой книге по обороне" Японии острова Токто снова названы японскими

В "Белой книге по обороне" Японии этого год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снова обозначены как японские.

Документ был утверждён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Японии 28 августа. В книге говорится, что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споры по поводу исконно японских север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островов Такесима (так называют Токто в Японии) по-прежнему не решён.

В документе приводится карта, рисунки и таблица о Токто. Что касается КНДР, то некоторые фразы относитель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ы были слегка изменены. Выражение "угроза нового этапа" было удалено, зато были включены отсылки на заявление Ким Чон Ына о прекращении испытани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и готовности к ядерному разоружению.

Однако сам факт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угрозы со стороны КНДР по-прежнему существует, говорится в "Белой книге". В ней также указано, что Япония проявля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е Мун Чжэ Ина, но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и серьёз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В связи с притязаниями Японии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строва Ток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вызван в МИД РК, где ему был заявлен решительный протест по поводу содержания книги об островах Токто.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едложило бюджет на 2019 год в размере 470 трлн вон

Расходная часть бюджета, предложенн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К на 2019 финансовый год составит 470,5 трлн вон или 422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9,75% больше, чем в текущем году,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асходы на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увеличены на 22%, на соц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на 12,1%,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на 10,5%, на оборону на 8,2%.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направить бюджет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е позднее 31 августа. Почти 10-процентный рост бюджета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 самый высокий с 2009 года, ког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расходы увеличились на 10,6%,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южнокорейскую экономику после глобаль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2008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в будущем году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на 7,6%. Бюджетный дефицит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уровне 1,8% ВВП, что на 0,2% больше, чем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тношение госдолга к ВВП должно составить 39,4%, что на 0,1% меньше, чем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Пхеньяне пройде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арафон

23 сентября в Пхеньяне пройдет второ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сенний марафо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8 августа на сайт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туризму КНДР.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полном марафоне, полумарафоне, а также на дистанциях 10 и 5 км. Спорти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о 70-й годовщине основания КНДР. Осенний марафон проводится лишь второй год, тогда как весенн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арафон, приуроченный ко дню рожд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имеет давнюю традици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сеннем марафо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40 спортсмен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и участники из Голландии, Швеции, Чехии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роблема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требует скорейших действий

Прошедшая 21-я встреча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иуроченная ко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15 августа, показала остроту нерешённой проблемы разделённых границей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уходят из жизни, так и не встретившись с родными. В прошедших встречах,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два этапа с 20 по 26 август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70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и этом заявки поступили от 56 тысяч человек, 85% из которых старше 70 лет.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га и Севера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одолжать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чтобы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можно было провести ещё одну подобную встречу. В ходе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могут также обсуждаться варианты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 по видеосвязи 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щения членам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своей родины. Помимо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также скорее устанавливать связь с оставшимися в живых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 налаживать переписку.

Гинекологи РК отказываются делать аборты

28 августа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гинекологов заявила об отказе проводить процедуры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прерыванию беременности и аборт. Данное заявл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в ответ на лишение одного из врачей лицензии на врачебную практику на месяц из-за проведения аборта, который был признан ране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аморальным действием. Ассоциация гинекологов выступила с протестом в адрес данного решения, поскольку оно было вынесено ещё до рассмотрения иска 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сти абортов.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ссоциации напомнили, что аборты разрешены в 23 из 30 стран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действия и развития, и указали на то, что наказание женщин и врачей – это лишь временная мера. Вместе с тем,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защите прав женщин также выражают недовольство законопроектом об аморальности абортов, поскольку он не учитывает право на принят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реш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Монструм»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Ситжес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фильм Монструм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51-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фантастического кино в Ситжесе в период с 5 по 14 окт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пятницу в кинопрокатной компании Kadari Ent. Ранее, на этом фестивале были показ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Барышня», «Вопль», «Поезд в Пусан» и «Чудовище».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Монструм» состоится в РК 13 сентября. Фильм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элементы боевика, фантастики и исторической тематики. Основной сюжет посвящён противостоянию героев фильма ужасному монстру. (RKI)

Митинг в Уссурийске к 150-летию Хон Бом До

27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в Уссурийске провели небольшой митинг к 150-летию героя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Хон Бом До. Члены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и общества пожилых людей «Ноиндан»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памятнику в честь легендарного партизана. Монумент еще не готов полностью.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а планируется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Памятник Хон Бом До установле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Уссурийс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Ида Ким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Автобиография (Авторский стиль полностью сохранен)

Я, Хон Бом До, родился в 1868 году, 27 августа в Корее, г. Феньян (г. Пхеньян), в семье бедных родителей. Лишившись в детстве. Когда мне исполнилось 8 лет,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воспитывался и работал до пятнадцати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в родного дяди. С 1883 по 1887 год служил в пехоте сигнальщиком в г. Феньян, а с 1888 по 1893 год работал бумажной фабрике в с. Чоннен, округа Суан, провинции Хванхайдо.

В 1894 году в дер. Максир (рядом с табачным селением Чоннен, лишив трёх корейцев жизни, являвшихся сторонниками японского монархизма, бежал из с. Чоннен, где я тогда работал на бумажной фабрике, в горное селение Черво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где я впервые организовал отряд инсургентов в 300 человек для борьбы с японским хищником.

Вехи пути борьбы с последними были намечены – увеличивая отряд количественно, довел его численность до 1400 чел., развил кровавую борьбу с империалистами Японии с 1894 по 1899 год в провинциях Канвондо и Хамкен.

С 1900 по 1903 год в горном местечке Ансан, Пукчен, провинции Хамкендо, занимаясь земледелием,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ся в стрельбе. В 1904 году в г. Пукчен был японцами пойман и заключен в тюрьму, откуда через 6 месяцев мне удалось убежать.

Дальше с конца 1904 по 1913 год снова вел борьбу с японцами в округах провинций Хамкендо, Капсан, Тяндин, Тенфен, Хамхын, Хонвен, Самсу, Ивен, Танчен, Мусан, имея отряды человек в 2500, сосредоточившиеся там же, в горных, захолустных местах.

В 1913 году, в июле месяце, будучи преследуем японцами и не имея возможности сражаться дальше в Корее, перебрался на нынешний Совет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где пробыл до 1919 года, в надежде на то, чтобы нам, как тогда мыслил я, получше вооружиться и побольше запастись военными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борьбы с поработителями Кореи. В 1919 году, в сентябре месяце, когда, здесь на ДВ, запрещалось вести открытую борьбу с интервентами, я с набранным в Суйфунском районе из бывших моих соотарицей по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и хищниками отрядом в 150 чел направился в Северную Маньчжурию, уничтожая на пути к последней встречавшиеся с нами шайки китхунхузов и белобандитских разведчиков на сове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местность Айндэк). Прибывший в Северную Маньчжурию с отрядом и увеличив его численность до 1500 человек, сражался в 1920 г. В местностях Пон-укоб, Нотхугоу, Понмингоу, Чесчан, Удунянч.

В 1921 году, в январе месяце, терпя нужду в боевых припасах,



преследуемый превосходными в сотни раз численно и качественно полчищами японцев, я со своим отрядом бойцов в 700 человек из Маньчжурии перешел на сов. Территорию в Иман, где я оставил часть бойцов в 380 чел. Под именем же моим, а с остальной частью в 220 человек партизан я поехал в Свободный по приказу командующего 2-й Армией. В г. Свободном я с отрядом влился в отряд Каландарашвили и с последним прибыл в мае месяце в Иркутск, где я был тогда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1-го батальона Корбригады 5-й Армии. В 1921 г., в ноябре месяце, я поехал в Москву к Ленину, в качестве делегата-представителя от корпартотрядов, с докладом о возникшем в 1921 г. в г. Свободном между корпартотрядами кровавом инциденте. Из Москвы вернулся в Иркутск в феврале 1922 г. С 1923 по 1927 год занимался земледелием в Калининском районе и там же в 1927 году вступил в партию, а с 1928 года по н/в работаю в Ханкайском районе в коммуне «Звезда Ханки».

Членский билет № 0578392
Начальник бывших корпартотрядов **Хон Бом До**
4-го июля 1932 г., с. Сентухинка.
(Ким В. Д., Туманган пограничная река, 1994 г., с.105 – 107)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1.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13.08.2018 (пн) - 31.18.18 (пт) 18:00
2.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07.09.2018 (пт) в 17:00,
3. Начало занятий: 10.09.2018 (пн)
4.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через сайт Центра <http://www.sakhalinedu.com>. Или заполнить заявление лично в Центре, приложив фотографию.
5.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50-56-96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2018년 제2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 신청>

사할린 한국교육원

2018년 제2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신청기간: 2018.8.13(월) ~ 8.31(금) 18:00
2. 개강식: 2018.9.7(금) 17:00, 교육원 대강당
3. 수업 시작: 2018.9.10(월)
4. 신청방법: 신청은 <http://www.sakhalinedu.com> 사할린한국교육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음. 또는 교육원에서 서면신청서 작성, 사진을 붙여 교육원에 제출.
5. 문의: 교육원 전화 50-56-96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шко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ут более 58 тысяч учащихся

1 сентября впервые за парты сядут более 6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первоклассников.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и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 Сегодня все островные школы готовы к организованному началу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 До 20 августа муниципальные комиссии принял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356 учреждений. На ремонт зданий школ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около 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еще 110 миллионов использовано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75 миллионов - на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приобретено свыше 11 тысяч единиц лабораторного, учеб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компьютерного и спортив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более 283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учебной литературы.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учащихся учебниками по заявкам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удовлетворена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 подготовке школ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уделено вопросам обеспечения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школьного питания и подвоза учеников к месту обучения. Сегодн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учрежд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имеют ограждение по периметру территории, оборудованы кнопкой экстренного вызова полиции, системами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и автоматической пожарной сигнализацией.

-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как и прежде, находятся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школьного питания, - продолж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 Более 31 тысячи школьников, как и прежд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бесплатное молоко. Это ученики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дети из сем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из малоимущих семей, а также учащиеся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помним, такая практика была введена в регионе в 2015 году. Также решено в больших объемах вводить в рацион школьного питания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отметила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лностью решена проблема подвоза обучающихся из отдаленных сел к местам обучения. На 1 сентября утверждено 113 транспортных маршрутов. В школы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авлять более 3,5 тысяч учащихся. Сегодня парк школьных автобусов насчитывает 103 единицы, до конца года его пополнят еще 16 автобусов, которые заменят устаревшую техник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о сельхозпродукции и добыча угля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семь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 582,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ли 98,8 процента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ложился в размере 577,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или 99,1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7 годом в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лась добыча газа - на 9,3 процента (19,1 миллиарда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и угля - в полтора раза (5,9 миллионов тонн).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добыто на 3,4 процента меньше - 10,9 миллиона тонн.

В течение семи месяцев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ара и горячей воды,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лесоматериалов продольно распиленных, пресервов рыбных, молока и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ов, кисло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масла сливочного, мяса, мясных субпродуктов 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пива и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ставил 3,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в 1,4 раза выше аналогичного периода 2017 года.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в 1,7 раза) и яиц (в 1,5 раза). Молока получено больше на 7,7 процента. Поголовье свиней выросло в 1,3 раз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 на 6,8 процента, птицы - на 5,2 процента.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1 корову увеличился на 8,9 процента.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в отчетном периоде сохранился рост объемов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на 3,8 процента) и платных услуг жителям (на 2,1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на конец июля 2018 года сложился на уровне 0,5 процента, что ниже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ы 2017 года на 0,2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ряды островн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полнят 140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на традиционной августов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Ее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495 работников островной сфе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профсоюз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 23 и 24 августа. В первый день работали открытые образо-

в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на базе п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Холмска, Невельска,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 второй день прошло итоговое пленарное совещание.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Сегодня мы собрались,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стратегию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вете майского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 отметил Антон Зайцев. -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инициировано 12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о сути дорожную карту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определяя образ будущего страны.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во многих проектах ключевая роль отводится именно образованию. Модернизация этой сферы - задача,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ть решена в процессе постоя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порта, соцзащиты.

Сейчас профильное федер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разрабатывает новый паспор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разви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О том, как он будет внедряться в региональную сферу образования, участникам конференции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В проекте несколько составляющих, важнейшая из которых «Современная школа» предполаг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кол и ввод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учебных мест, ликвидацию второй смены, создан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езбарьерной среды и обновление стандартов.

К пример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ликвидации второй смены к 2024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2 новые школ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созданию услови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ьм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В 2017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 в которых была создана универсальная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увеличилось до 42. К 2024 году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задача создания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езбарьерной среды в 40 процентах все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области, - подчеркнула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Полно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и вне школы. Втор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нацпроекта - «Успех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 связана с гармоничным развитием личности. Речь идет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школьников и поддержке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Здесь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перечислила созд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одельного центр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должится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я направлений, по которым уже достигнуты серьезные успехи, в частности, создание сети детских технопарков.

Первый «Кванториум» на Сахалине был открыт в этом году на баз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Работу н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уже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До конца 2019 год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ткрытие еще двух таких площадок.

Дополнительно руководство области поставило задачу создать в новых районных школах мини-кванториумы, где дет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учаться по современным программам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ой и техн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 Следующее направление, очень важное для нас, - это проект «Учитель будущего». Для меня это ключевой проект. До 2024 года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островных педагогов должна пройти через качественную систему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 заявила министр. - Ведь без творческог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учителей выполнить многие задачи будет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Федераль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бновление и по ряду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й - это проекты «Современные родители», «Цифровая школ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каждого», «Социальная активность» и «Повышени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го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кванториум получил две наград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ектный Олимп»

Дипломами конкурс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Анали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мечен проект кванториум,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в области на островах.

Первый диплом детский технопарк получил как финалист конкурса, второй - за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и высокий командный дух. Награды руководству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президиума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проектам и программам перед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 Все составляющ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проекту были высоко оценены экспертами. Итоги подведены в Ульяновске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Управление проектами-2018: государство,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Отмечу, что второй диплом - за значим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и высокий командный дух - был присужден не конкретному ведомству, 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Эксперты увидели в субъекте четко организованную командную работу и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Целями конкурса являются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струментов проек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а также госкорпораций и компаний, оказывающих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ое влияние на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Напомним, кванториум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в этом году. Учрежд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11-18 лет начало работать на базе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Технопарк объединил шесть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готовки: «Робоквантум», «IT-квантум», «Промышленный дизайн», «Аэроквантум», «Геоквантум», «Энерджикванту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здесь занимаются около 300 ребят.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творческий - школьники не просто получают теоре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но и применяют их на практике, создавая различ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и устройства - от измерительных приборов до роботов 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Этот опыт поможет учащимся получить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на рынке труда инженер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в регионе будут открыты еще дв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которые разместятся на баз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и гимназии №3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олее 200 жителей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ошли обследование в передвиж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омплекс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мобильные рентген-кабинеты, которые оснащены цифров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флюорографических и маммографических обследований. Это позволяет выявлять различ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онкологические,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Три комплекса, размещенных на базе автомобилей «КАМАЗ», регулярно курсируют между селами районов, где нет стационарных рентген-кабинетов. Техника приобретена в конце 2017 года, модернизац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автопарка в регионе проходит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областной и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 развит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дну из остановок комплекс сделал в центре Анивы, на пешеходной улице Ленина. Рядом с ни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установили палатки, где можно было пройт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осмотр.

-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мы проводим измерение холестерина, глюкозы, артериального и внутриглазного давления, - сообщила старшая медсестра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Анивской ЦРБ Елена Михайлова. - Измеряем рост и вес, делаем ЭКГ. Если необходимо, отправляем на лучевую диагностику. Результаты некоторых обследований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рямо на месте, по флюорографии и маммографии буквальн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 Некоторые пациенты нам знакомы, у них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Есть случаи первичного выявления. Это сахарный диабет, предрасположенность к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м заболеваниям. Если будет обнаружена какая-то патология, мы свяжемся с пациентом и вызовем к себе на приём, - уточнила фельдшер кабинета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Анивской ЦРБ Елена Дзунза.

Приём в развернутом медпункте велся с 9 до 16 часов, всего за 3 дня было обследовано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своё здоровье приходили люди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для удобства у палаток установили лавки.

-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рить своё здоровье, очень удобно сделали. Решила пройти все обследования, процесс проходит быстро,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Анивы Тамара Виноградо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и другие передвижные медкомплексы.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иобретено 9 «мобильных поликлиник». Они закреплены за центральными районными больницами, выезжают в небольш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вместе с бригадами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каждой из этих машин есть клинико-диагности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кабинеты врача общей практики и гинеколога,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сканер. Кроме этого,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области уже два года используют передвижны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е кабинеты, они оборудованы на базе автобусов ПА3 и также курсируют между селами.

Регуляр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у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ахалина затруднительно. Важ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здесь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добными выездными формами работы было охвачено 60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В этом году, с учетом поступления новой техники, планируется осмотреть еще больше - около 80 тысяч человек. Благодаря внедренны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всеместным скрининговым обследованиям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высокого показателя выявляемости слож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 сентября 2018 г.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боры кандидата 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7 созыв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округу №9



9 СЕНТЯБРЯ ГОЛОСУЙ



ЗА кандидата СПРАВЕДЛИВОЙ РОССИИ!

ПАРТИЙ МНОГО СПРАВЕДЛИВАЯ ОДНА!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ЗО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атериал опубликован кандидатом 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седьмого созыв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округу № 9 Якубенко В.А.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제8회 сахалин 국제영화제

'사랑받을 때 모든 아이들은 아름답습니다' (영화 '희귀' 중)

(2면의 계속)

'사랑받을 때 모든 아이들은 아름답다. - 버사 홀트(Bertha Marian Holt)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는 캘리포니아에 기록에는 '최애순(순수한 사랑)'란 이름 외에 다른 기록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한다. 어머니를 찾을 단서가 너무 부족했다. 토마스도 벌써 몇 번째 이곳을 찾아와 어머니를 찾도록 재촉하고 있었다. 캐롤리나는 담당자에게 서류 기록상 인천 시병원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찾아 병원에 문의를 요청하지만, 요청은 다른 이유 없이 거부된다. 어머니를 찾기까지 시간만 늘어간다. 도심의 비좁은 골목길,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의 길에 쫓그리고 앉아 토마스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그의 답답하고, 암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거리에 같은 얼굴, 고국의 문화, 언어는 시간이 가면서 친숙해진다. 2년 전부터 한국을 드나들던 토마스는 한국에서 지내다 덴마크로 돌아가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국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마침내 토마스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캐롤리나와 함께 어머니를 만난다. 토마스의 친모는 미역국과 불고기를 준비해놓고 아들 토마스를 만난다. 어머니는 토마스에게 미

역국을 떠 먹인다. '생일날 먹는 국'이라며. 토마스는 가장 궁금한 진실을 어머니에게 묻는다. 왜 버렸냐고.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아는 오빠와 만나 실수하여 임신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양시키고자 친자포기각서를 쓴 후 입양재단 측이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찾으러 왔지만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는 변명을 한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아들에게 전한다. 토마스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고, 자신의 존재가 먼 땅에 있게 된 사정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 반면 캐롤리나는 도시 거리에 사방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사실을 밝히려는 기구들이 난무한데, 자신의 진실을 밝히려는 데서는 사방이 막혀있음에 절망한다. 그리고 덴마크로 돌아가기 전, 꼭 다녀오고 싶었던 곳을 찾아 간다. 그곳은 캐롤리나를 위탁모에게 맡겼던 어머니가 있었던 곳, 웅진군 바닷가다. 아무도 없는 물빠진 갯벌 속으로 캐롤리나가 발을 집어 넣으며 바다로 향하는 장면에서 스크린은 어두워진다. 인터뷰에서 최 말레네 감독은 아직도 어머니를 못 만났다고 한다. 현재 덴마크에 입양아 수는 2천 명이 넘는다고 했다. 최

감독은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를 소외시키고, 사회 활동에도 제약을 두는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은 진행 중이며, 더욱 사업화되었다고 했다. 영화 속 토마스 환은 덴마크의 유명 배우로서 활약 중이고 캐롤리나는 교육자라고 한다. 그 외에 입양인들 중에는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번 영화제에는 한국 영화 총 5편이 상영되었다. '살아남은 아이'(2017년 개봉. 신동석 감독)는 청소년기의 아들(은찬)을 잃은 부모가 아들의 사망 원인이 조작된 사실을 다시 밝혀내는 과정을 그려냈다. 사랑하는 외동아들의 사망 원인이 아들의 친구한테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여 보복을 꾸미지만 부모는 아들의 친구가 아들이 죽은 물가에서 자살하려는 순간 달려들어 구한다. 삶의 어떤 속임수 앞에서도 절망과 죽음보다는 삶의 가치가 더 소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택시운전사 (2017년 개봉. 장훈 감독)'는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이끈 영화로 유명하다. 1980년5월 18일 전남 광주에서 벌어진 광주민주화항쟁을 소재로 당시 외신 기자였던 독일인 힌츠 패터와 택시 운전사 김사복

의 인연과 이때 발생한 광주사태에서 이들의 인연으로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밀반출시키는 작전이 흥미롭고 긴장감 있게 전개되었다. '버닝(2018년 이창동 감독)'과 '미스터 쿠퍼(2015년. 오정미 감독)'는 오정미 시나리오 작가가 쓴 작품으로 오 작가는 이번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었다. 오 작가는 영화를 소개하며 세상을 품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영화라고 했다. '미스터 쿠퍼'에서 쿠퍼는 사진상에 남성의 성적 유희류를 지칭했다. 젊은 남녀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가족을 이루기에 준비되지 않은 가난한 현실은 두려움이 되어 사랑을 억압하고, 가로막는다. 준비되지 않은 현실과 사랑 사이의 씨름으로 젊은이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지 고민한다. '버닝'은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헛간을 태우다' 원작을 가지고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다. '버닝'은 2018년 파리 칸 영화제에서 국제영화제비평가 연맹상, 별칸상을 수상했다. 이날 상영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봉일보다 하루 앞서 상영되었다고 오 감독은 밝혔다.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미스터리로 보이는 젊은이

들의 내면과 허상과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 택배기사 종수, 여자친구 해미, 해미의 친구 벤은 친구로 만난다. 종수의 꿈은 작가로서 글을 쓰는 것이다. 택배기사로서의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다. 해미는 알바로 버티던 생활을 털고 아프리카를 여행한다. 돌아와서는 아프리카의 리틀헝거(식량에 주린 자), 그레이트헝거(삶의 의미에 주린 자)를 언급한다. 해미의 친구가 된 벤은 소수 상류층 계급의 청년으로 리틀헝거를 벗어난 그레이트헝거에 몸부림하는 청년의 모습이다. 벤은 뺏속 베이스를 즐기기 위해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비닐하우스를 두 달에 한 번꼴로 불태운다고 했다. 있었던 흔적을 깨끗이 지우듯이. 원초적, 일차원적 욕망에 주린 여자를 데리고 놀다 지리해지면 쓸모없어져 그는 쓸모없는 것들을 연기처럼 보낸다. 세 청년의 무언가에 대한 분노 표출의 방식은 달랐다. 그리고 종수는 허상에 사로잡혀 살인마가 되어버린 벤을 살해하면서 영화는 종료된다. 오정미 작가와 인터뷰에 따르면 이창동 감독은 '요즘 사람들의 분노, 대상이 불분명한 분노'를 표현하려 했다고 했다. (글: 박혜신)

이모저모

(2면의 계속)

통신상 통신방식의 변경으로 전화번호의 배열도 바뀌게 된다. 통신국 직원들 내선 번호 559009가 통신국에서는 사할린 연방 우편통신국의 통합 다중회선 전화번호로 도입된다.

내선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별표(*)를 더 늘려 전화기를 음성다이얼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체국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693019 우체국은 - 559124; 693020 우체국은 - 559126; 693024 우체국은 - 559125; 택배사무소(전의 EMS)는 - 559122.

그동안 걸었던 전화번호는 2018년 8월 말까지 다중회선 전화번호로 전달되는 조치로 통화가 가능하다.

우편영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사할린 주민들은 사할린 연방 우체국의 다중회선 전화번호(559009)로 문의 바람.

В Сахалинском филиале Почты России сменились телефонные номера

УФП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филиал «Почты России» уведомляет своих партнеров и клиентов о смене телефонных номеров в Филиале, в почтовых отделениях 693020, 693019, 693024 и участка курьерской доставки (ранее EMS).

В связи с изменением формы связи меняется порядок набора номера. В управлении филиалом вводится единый многоканальный телефонный номер УФП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559009 с последующим набором добавочного номера специалистов управления.

Если Вы не можете дозвониться по добавочному номеру, Вам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ести телефон в режим тонального набора, чаще это кнопка «звездочка» (*).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вязаться с отделениями почтовой связи, необходимо позвонить по следующим телефонным номерам: отделение почтовой связи 693019 - 559124; отделение почтовой связи 693020 - 559126; отделение почтовой связи 693024 - 559125; участок

курьерской доставки (ранее EMS) - 559122.

Обращаем ваше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ранее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номера буду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в режиме переадресации на многоканальный телефонный номер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По любым вопросам, связанным с работой почты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по единому многоканальному телефонному номеру УФП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559009.

제 2 회 러시아 학생운동 집회 사할린에서 시작

140명 이상의 유·청소년 활동가들과 교사들이<러시아 학생운동>제2회 전국 유·청소년 단체지도자 집회에 참가했다.

<유빌레이니>아동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회기가 8월 27일에 시작되어 9월 5일까지 지속된다. 집회의 프로그램들은 4방면에서 교육적인 세부 조치를 담고 있다. 군인적 애국심, 언론정보, 시민활동, 자기계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활동교실과 훈련, 실습교육, 견학에 참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강의와 진로결정을 돕는 도전게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러시아 학생운동 사할린주 지역 담당자인 타치아나 포노마렌코와는 "«교실 만남»은 올해 가장 새로운 기획이며 이 행사의 일환으로 관심있는 사람들, 사회 주요 인사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계획되었다. 이들의 개인적 이력과 삶의 경험은 유·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집회의 총결산으로 신학기 사할린주 전 러시아 학생운동 발전에 따른 우선적 과제를 결정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러시아 학생운동지부는 사할린 지역에 130개 이상의 학교를 중심으로 개설되었고 이 운동에 사할린-쿠릴의 유·청소년 70% 이상이 참가했다.

러시아 학생운동은 국공립 유·청소년단체 및 기관 전체가 학생들의 교육과 발전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차세대의 교육과 인격형성을 담당하

는 교육자와 기관을 연합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 학생운동단체는 2015년 10월 29일자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Второй слет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стартовал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140 юных активистов и педагогов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второго слета лидер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е движ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РДШ).

Смена открылась 27 августа на базе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детского центра «Юбилейный» и продлится до 5 сентября. Программа слет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одули по четы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медийное, граждан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личностное развитие. Ребят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тренингах, практикумах и экскурсиях. Кроме того,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роведут занятия и квест-игры по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Новшеством этого года стал проект «Классные встречи». В его рамках запланированы мероприятия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деятелями, чьи личные истории и жизненный опыт служат ярким примером для молодежи, – сказа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ординатор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Пономаренко.

По итогам слета школьники разработают резолюцию, в которой определяют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по развитию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Сегодня отделения РДШ открыты на базе более 130 школ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 движению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более 70 %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оссийское движение школьников –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етско-юнош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ой целиком сосредоточена на развитии и воспитании школьников. Движение стремится объединять и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организации и лица, занимающиеся воспитанием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и формированием лич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я созда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октября 2015 год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			<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